

최고 지도자 선출법에 각 종교별 특징 담겨 있네

각 종교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0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더 나아가 한국 종교계를 대표할 지도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종교 국가인 한국은 많은 종교들이 있으며 최고 지도자들은 종교별로 각기 특이한 이름으로 불린다. 불교계는 '총정', 원불교는 '종법사', 천도교는 '교령', 증산도는 '종도사'로 부른다. 유교는 '성균관장'이며, 대종교는 '총종교'이다.

종교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세속인에게는 그런 명칭도 있거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수많은 종교들은 각각의 체제를 갖고 부처님의 대가설법과 같이 사회에서 중생들을 밝은 길로 이끌고 있다. 이 시대 우리 곁에서 각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추대 또는 선출될까?

불교

한국불교를 이루고 있는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의 최고위직은 '총정'이다. 하지만 종단 업무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총무원장'을 들 수 있다.

'총정'은 불교계에서 정신적인 최고지도자로 불멸의 상징성이 크게 부각된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종헌종법에는 종정으로 세수(세속의 나이)가 65세를 넘어야 하고 법랍(출가 후 나이)도 4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계 대종사의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종도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야 한다.

'총정'은 전임 종정 임기만료 3개월 전,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정추대위원회에서 추대토록 하고 있다.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조계종의 경우 1962년 통합종단 이후 지금까지 9명의 대종사가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다. 이 가운데 고암, 성철, 법전 스님은 연임했다.

태고종은 현재 종정인 혜초 스님까지 총 10명의 종정을 배출했고 역시 5년 임기제를 택하고 있다. 반면 천태종은 종신제로 현재 도용 스님이 종정이다. 진각종은 종인이자 부르며 해일 정사가 종인이 맡고 있다.

추대 형식을 띠는 '총정'과 달리 종단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총무원장의 경우 각 종단은 대부분 선거 형식을 통해 선출한다.

조계종의 경우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직할교구를 포함한 25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선출된 250명의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태고종은 중앙종회의원 49명의 투표를 통해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천태종은 종정중심제로 총무원장 및 종회의장, 감사원장 등을 종정이 지명하고, 종의회에서 임명을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진각종의 경우는 종의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데 총무원장은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행계(行階) 4급 인사(印師) 이상의 스승 모



1 불교계 청정선거운동. 2 청정선거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 3 유교. 4 한기총 공명선거운동. 5 콘클라베.

두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점이 특이하다.

가톨릭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상하의 엄격한 계급체계가 특징이다. 성직에는 꼭지적인 교황에 이어 추기경-대주교-교구장 주교-보좌 주교(승계권 없음)-부주교(유교 시 교구장 승계)-명예 고위 성직자(문시봉)-교황 명예 전속 사제(문시봉)-주임 신부-신부-보좌 신부-부제 등이 있다. 성직 외에 수녀와 수사 등 수도자 또한 존재한다.

가톨릭은 최고 수장인 교황을 추대하는 과정인 '콘클라베(conclave)'로 유명하다. '열쇠로 잠금 방(lockable room)'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콘클라베'는 교황 클레멘스 4세가 선종한 후 자기 교황 선출을 위한 '비테르보(Viterbo)' 선거에서 유래했다.

비테르보 선거는 1268년 시작돼 1271년까지 3년 가까이 진행됐다. 이때 비테르보 시민들은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 좀 더 지체롭고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며 추기경들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가둬고 당시

종정 종법사 교령 등 최고 지도자 명칭 다양 가톨릭 '콘클라베' 유명... 원불교 남녀평등 구현

선출된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이 방법을 1274년 제도화했다.

전통적으로 콘클라베의 투표 결과 교황이 선출되면 시스티나 성당 굴퓌에 현 거리를, 그렇지 않으면 검은 연기를 피운다.

각 나라의 가톨릭과 교황청 각 관청 주요요직을 담당하는 추기경은 교황에 의해 '서임' 받는다. 서임은 추기경회의에서 교황이 교령으로 공포하며 권한은 교황에 국한된다.

추기경은 교황을 직접 보필하면서 세계 12억 명의 가톨릭 신자를 직접 통치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의 비밀회의인 콘클라베에 참석해 교황을 뽑는 선거권과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도 갖는다. 단, 콘클라베에 참석할 수 있는 추기경은 80세 미만이어야 한다.

등 여러 교단과 교파의 연합체로 실질적인 업무판장은 대표회장이 맡는다.

현재 명예회장이 12명, 대표회장 1명, 공동회장 23명 등이 있으며, 각 회장 및 임원은 각 교파 총회장을 책임하거나 재임하고 있다.

이중 대표회장 직을 비롯해 각 장 및 인사의 선출은 불교계의 중회 역할을 하는 실행위원회를 통해 선출된다.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각 교단별로 비례해 선출된다.

각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 선출은 교단별로 다르지만 선거기탁금제를 운영해 후보단립 등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장 합동 등에서는 파벌 및 갈등을 막기 위해 총회장·부총회장을 예비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개신교

개신교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존재한다. 이중 한국 국기 독 교 총연합(NCKC)은 63개 교단과 22개 단체로 구성된 개신교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원불교

최고 지도자는 불교계의 종정 역할인 '종법사'로 교단 최상위 교화단인 정수위단 추천을 통해 최고결의기관인 수위단회에서 선출된다.

정수위단은 74세 이하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대된 후보는 수위단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종법사로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선출된 종법사는 세속의 의회적인 중앙교회에서 추대한다. 종법사는 임기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종법사 외 종법사의 명을 받아 중앙집행기관인 중앙총부 교정원을 이끄는 교단의 행정수반인 교정원장도 있다. 불교계의 총무원장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원불교는 지도자 선출 등에 남녀평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종교 중 가장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위단회가 17명의 남자교도와 17명의 여자교도로 구성되며 2003년 이해전 교정원장의 취임이 종교계 첫 여성 지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현재는 이성태 교정원장 체제다.

유교

한국 유림은 총회본부 개념의 성균관에서 성균관장이 유교 수장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 향교에는 향교 대표자 '전교'가 있다.

성균관장은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를 대표하며 전체 유림을 이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관장 선출은 대의원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며, 최고결의기구인 성균관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전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성현들에게 분향을 하고, 춘추로 석전을 올리며 유교의 성인을 추모하는 제향 기능을 담당한다. 또, 전교를 보좌해 분향과 석전을 진행하는 장의가 있는데 장의는 6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전국 조직으로 유교인의 단체인 유도회(儒道會)도 있다. 중앙에는 유도회총본부가 있으며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현재 유교는 성균관재단과 유도회와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천도교

천도교는 종의제(宗議制)에 의한 민주적 중앙집권 체제가 가장 눈에 띈다. 천도교의 최고 지도자는 '교령'으로 3년마다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다. 교령의 임기 또한 3년 단임제로 260여 전국대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령은 천도교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총무원을 담당하는 총무원장이 있으나 교령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교령을 비롯해 종의회의원, 중앙감사 등 주요 교직자는 모두 3년마다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에서 선출되며 총무원은 교령이 지목, 대의원회 인준으로 처리된다. '교령'은 도령, 대도령으로 불렸으나 해방 직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김동환 교령이 이끌고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교용품 / 불교서적 / 불교달력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 www.bori.biz 창립 35주년 기념 불교달력 특별할인!

동진기획 · 붓다쇼핑

그곳은 불심의 시선이 머무는 곳!

<p>불교용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향, 주옥, 염주, 염주주머니 왕초, 향, 다포, 악세서리 4-8용품, 등포, 전선-전구 공단등, 바람등, 만월등, 청사초롱 불촉카드, 생일카드, 포린트지 예수재용품, 영가웃, 탑다라니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p>불교서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우리말사경책, 제비라뱃뿔 금강경전세트, 불자수첩, 방풍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예불전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p>불교달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6절(大) (30.5×31.0cm) 12절 (25.8×26.5cm) 두달 (25.8×26.5cm) 차월 (9.0×15.5cm) 미니 (8.9×9.5cm) 다이어리 (9.5×13.4cm) 타상 (26.2×19.0cm) 한지 (30.0×45.5cm)
--	--	--

12절 1,000원 (100부이상)

최상의 지질과 최고의 품질로 보답합니다.

- 표지 - 한국제지 250g/m² 아트지
- 내지 - 한국제지 180g/m² 스노우지
- 제본 - 카피어랜드 트윈스프링(국산)

공장 → 사할 적거래판매 생산자 도매상 불교상회 사할

7호 가람의 향기 8호 관음도

동진기획 · 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령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 총 42종의 달력,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달력카드록 · 용품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